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10.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덴마크, 테러 모의범 중형 선고 및 시민권 박탈
 - 9.28 덴마크 법원은 테러 범행을 위해 총기와 탄약을 구입하고 ISIS의 깃발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덴마크·터키 이중국적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덴마크 시민권을 박탈하여 출소 후 추방 예정

미주

- 美 애틀랜타 총격범, 인정신문에서 무죄 주장
 - 9.28 美 애틀랜타 폴턴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3.16 폴턴카운티와 체로키카운티에 있는 스파와 마사지 업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인 4명 등 총 8명을 살해한 「로버트 애런 롱」(22)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, 同人은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
 - * 지난 7월 체로키카운티 법원은 同人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

아·태평양

- 검찰, 시리아 테러단체 자금 송금 러시아인 구속
 - 9.29 검찰은 '20.5~'21.6월 UN 지정 시리아 테러단체 '알 누스라 전선'에 테러자금 290만원을 송금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(20대, 男)를 「테러방지법」·「테러자금금지법」 위반 등으로 구속
 - * 차명·환치기계좌로 송금, 테러단체에서는 무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

○ **코로나 확산 이후 한국인 대상 증오범죄 49건 발생**

- 10.1 언론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49건 발생했으며, 외교부·경찰청 등 관계부처間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증오범죄 예방을 촉구

* 발생건수는 미국(13건) > 독일(11건) > 영국·네덜란드·프랑스·캐나다(각 3건) 順

○ **뉴질랜드, 경찰권 강화 등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 통과**

- 9.30 뉴질랜드 의회는 9월초 발생한 ISIS 추종자 흉기테러*(7명 부상)를 계기로 '테러 계획'(준비)만으로도 처벌가능 하며 경찰에게 영장없이 압수·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「테러방지법」 개정안을 통과

* 9.3 스리랑카 난민 출신 「모하메드 삼수딘」(32)이 오클랜드 슈퍼마켓에서 흉기 난동

○ **아프간, 탈레반 대변인 모친 추도식 중 폭탄 테러 발생**

- 10.3 외신은 탈레반 대변인 「자비홀라 무자히드」의 모친 추도식이 열리던 아프간 수도 카불 소재 모스크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

* 사건 직후 탈레반은 ISIS-K(호라산지부)의 카불 은신처를 습격해 조직원 사살

중 동

○ **美, 시리아서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 지휘관 사살**

- 10.2 미군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 지역에서 드론 공습을 단행해 알카에다 공격을 계획·승인하는 고위급 지휘관 「살림 아부-아흐마드」를 사살했다고 발표

*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 민간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부연

아프리카

○ **수단, 수도 하르툼 內 ISIS 본거지 급습**

- 10.4 아프리카 수단 정보총국(GIS)은 수도 하르툼 남쪽의 자브라 지역에서 ISIS의 본거지 두 곳에 대한 군·경 합동 대테러작전을 전개, 조직원 4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4명을 체포하였다고 발표

* 작전 수행 중 1명(경찰) 사망 및 3명(경찰 1명, GIS요원 1명, 경찰위원회 1명) 부상

이집트, 시나이(Sinai) 연쇄 차량폭탄테러

- '04.10.7 이집트 시나이 반도 '타바 힐튼' 호텔로 200kg 이상의 폭약을 적재한 트럭이 돌진해 폭발, 10층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31명 사망·159명 부상
- '타바 힐튼' 호텔에서 50km 떨어진 누웨이바 지역 소재 '문 아일랜드 리조트' 앞에서도 주차 차량에 의한 2차 테러가 발생, 3명 사망·12명 부상
- 당일 사망자는 총 34명(부상 171명)이며, 이집트인 18명 · 이스라엘인 12명 · 이탈리아인 2명 · 러시아인 1명 · 미국인 1명 등
- 이집트 정부는 관련 사건을 조사하며 '팔레스타인 해방기구'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반면, 팔레스타인측은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
 - * 이집트 경찰은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으나, 이들의 소속 등 세부내용은 미공개
- 반면,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연쇄 폭발 사건을 자국민을 공격 목표로 삼은 테러로 규정하며 '알카에다'를 사건 주체로 지목
 - * 알카에다 프랜차이즈 조직 '압둘라 아잠 순교자 여단'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처

< 압둘라 아잠 여단(Abdullah Azzam Brigade) >

- (배경) '06년 이라크 알카에다 수장 '알 자르카위'('06.6 사망)의 지시에 따라 사우디 출신 '알 콰라위'가 레바논,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단체를 규합·결성
- (목표) 중동지역내 이스라엘 및 서방세력 축출
- (활동지역) 레바논(팔레스타인 'Ain al-Hilweh' 난민촌), 시리아, 아라비아 반도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대상 로켓 공격, 레바논 내 시아파 대상 폭탄테러 및 시리아에서의 게릴라전 전개('알누스라전선'과 연계)
- (테러사례) '14.2 駐베이루트 이란 문화원 대상 연쇄 자폭테러(141명 사상), '14.6 레바논 베카지역 시리아 접경 검문소에서 軍 장성 대상 자폭테러(38명 사상)
 - * 테러단체 지정 : UN('14.9), 美('12.5), 英('14.6), 캐나다('15.6)